

광양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 보육도시'로 우뚝

보육 공공성 강화·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 높은 평가 받아

광양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및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육분야 정부포상'에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과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평균연령이 41.5세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2018년 2월 '아동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마련했다.

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시책들이 심의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해 국공립 확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도말 13개소였던 공립어린이집을 최근 3년간 13개소 추가 확충해 현재 26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양육 부모와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 병행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

도록 시간제 보육시설을 2019년 3개소, 2020년 1개소를 추가로 선정 받았으며, 내년도도 4개소 확대를 추진하는 등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

▲전국을 선도하는 보육시책 추진

시는 그동안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2018년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지급해 왔으며, 쾌적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보육실 및 유희실 전체에 공기정정기를 설치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선진적인 보육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전국에서 유

일하게 영유아,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집 만0세반(0.1세 혼합반 포함)과 장애아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를 배치기준인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보육 인프라 구축 강화

광양시 육아지원 사업의 거점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육아 카페,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년 1월 임시개관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



고 있다.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에 들어가면 지역의 육아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학부모의 보육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15년 이상 된 노후 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 점등...내년 2월14일까지 59일간

순천시가 지난 18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허석 순천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중호 산림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최선언, 정원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주제영상과 퍼포먼스, 시민희망메시지 순서로 진행됐다.

또 국가정원 서원 일원에 연출되는 야간경관 조명 '별빛산책'점등식도 이어져 내년 2월 14일까지 59일간 야간 별빛산책을 감상할 수 있다.

별빛산책에는 판도라의 숲, 라이트

가든, 스노우가든으로 꾸며져 별빛과 눈이 내리는 한겨울 밤의 국가정원의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이어서 '정원의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우리시대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연사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이루어진 순천국제정원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이번 개막식 및 심포지엄은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개막식에서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는 느낌, 여유, 힐링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것이고, 이런 단어가 가장 부합하고 잘 어울리는 도시는 순천이 될 것이다."면서 "정원은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될 것이다. 정원

산업의 메카는 순천이 될 것이다. 오늘 정원산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그 정점을 찍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경제 활성화 빛났다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우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보성군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성사랑상품권을 400억 원 발행(370억 원 판매완료)해 작년 대비 40배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별교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이주 건축물 건립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임차료 50% 감면, △시장경영 바우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지역 스타기업 육성 사업, △전남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 △전남 지역 특화 산업 수출 세박 기업 지원 사업 등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공로와 6차 산업 선진 기지로의 도약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운영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6천만 원), △사무근로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6천5백만 원) 등의 시책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고 가계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민·관·기업이 다 함께 협력하여 달려온 결과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라며 "모든 부분에서 살뜰하게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의 경제시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책, 물가관리,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6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청년 상인 힘내세요"...상금으로 마스크 배부

여수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상인들에게 마스크로 공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시는 상금으로 받은 1500만 원으로 6마스크 14,600장을 구입해 사회적

업, 마을기업, 청년상인 등 146개소에 21일부터 배부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8,500만 원을 받게 됐다.

그중 사업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가능한 15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스크를 보급하게 됐다"며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청년

상인과 사회적기업이 힘을 얻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수형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활발한 기업유치, 다양한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과 산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